

2023.12.23 이·비욘뉴얼詩人 翻訳ワークショップ

1. 「새」
2. 「사람의 자리」
3. 「생활이라는 감정의 궤도」

「새」を翻訳して提出して下さい。

他の2篇はざっと目を通しておくぐらいで結構です。

1. 새

자면서 누구나
하루에 몇 번을 뒤척입니다

내가 뒤척일 적마다
누군가는 내 뒤척이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지구에 저 가장 안쪽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면서 여러 번 뒤척일 일이 생겼습니다
자다가도 가슴에서 자꾸 새가 푸드덕거리는 바람에
가슴팍이 벌어지는 것 같아
벌떡 일어나 앉아야 죽지를 앓겠습니다

어제는 오늘은 맨밥을 먹는데 입이 썼습니다

흐르는 것에 이유 없고
스미는 것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나는 생겨먹었습니다

신(神)에게도 신이 있다면 그 신에게 묻겠습니다

지구도 새로 하여금 뒤척입니까

자다가도 몇 번을
당신을 생각해야
이 마음에서 놓여날 수 있습니까

2. 사람의 자리

깊은 밤에
집으로 가는 길에 집 앞에
한 사내가 굵은 나뭇가지 하나를
두 손으로 붙들고 서 있다

할 말을 전하려는 것인지
의지하려는 것인지
매달리는 사실은 무겁다

사내가 나의 집 한 층 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사내가 몇 번 더 나무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았다

손을 놓치지 않으려는지
나뭇가지는 손이 닿기 좋게 키를 내려놓기까지 했다

어느 밤에
특히 오늘 같은 밤에는
그 가지가 허공에 팔을 뻗어
말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새를 날려 보냈는지
아이를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는 위층 사내도
나처럼 내어다보고 있을 것이다

그 가지 손끝에서 줄을 그어 나에게 잇고
다시 나로부터 줄을 그어 위층의 사내에게 잇다가
더 이을 곳을 찾고 찾아서 별자리가 되는 밤

척척 선을 이을 때마다
척척 허공에 자국이 남으면서
서로 놓치지 말고 자자는 듯
사람 자리 하나가 생기는 밤이다

3. 생활이라는 감정의 궤도

그는 먹기 위해 집 안의 모니터를 통해 배달 사항을 전송한다
밥 100 그램과 채소와 달걀 요리다
그의 직업은 생활인이다

도시 중앙센터의 식당에서 일을 하는 구역 요리사는
많은 주문 가운데서도 그의 주문을 비중 있게 다룬다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두 사람의 소통의 정도는
관상어가 먹고 배설하는 일 따위에 불과하겠지만
요리사는 어쩐지 그의 주문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사람 같다

건조한 주문이 있고
하나의 온기 없이 따뜻한 음식이 회전벨트에 실려 배달된다

기다린다 이제 밥을 기다리는 일과
주문을 기다리는 감정의 경중은 같다

어느 날부터였다, 그가 먹지 않는 날이 계속되었다
요리사는 며칠째 주문을 받지 못했으므로
어쩐지 중요한 일이 없어져버렸다

그가 먹는 음식으로 그를 상상하거나 읽어보려 했으나
그에 대해 아는 한 가지는
일인분의 한 사람이라는 것

그는 곧 도시를 떠나겠지만
어떻게든 도시는 도시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며
회전벨트를 타고 이 도시를 떠났던 모두처럼
누군가를 스스로에게 연결짓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것

도시는 빛이 많으니까 스스로의 빛도 필요하다
바깥 불빛보다 안쪽의 불빛에 의지해야 하므로
감정도 필요하다

지탱하려고 지탱하려고 감정은 한 방향으로 돌고 도는 것으로 스스로의 힘을
모은다